

사우디, 미달러 페그제 유지 표명

- 금년 2. 17(일)자에 개최된 사우디 국왕 앞 자문기구인 Shura Council과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와의 합동회의 결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로서는 자국통화인 riyal화의 미달러 페그제 정책 유지는 물론, 미달러 대비 자국통화의 재평가 (revaluation)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였음.
- 현재 사우디의 riyal화는 1986년 이래 미달러화에 3.75리얄로 페그되어 있는 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석유수출국으로서 고유가에 기인한 경제 활황과 유동성 증가 등으로 2007년 12월에 최근 16년 동안 최고치인 약 6.5%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국왕 자문기구인 Shura Council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합동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친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정치적 관점까지 고려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국통화의 미달러 페그제 유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었던 바, 금번 합동회의 결과에서도 최근의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미달러 페그제에 기초한 기존의 외환정책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천명한 것임.
- 또한, 금번 합동회의 결과 미달러 페그제 포기는 아니더라도 차선

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 여겨져 왔던 미국통화 대비 자국통화의 재평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에 따라, 당분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금번 사우디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전문가들은 금년 3월에 미연준의 추가금리 인하조치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달러의 지속적인 하락세가 사우디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인플레이 압력을 더욱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 미국의 경기침체 예상과는 달리 사우디는 올해에도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오일머니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제반 경제여건이 인플레이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사회경제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 사우디 정부가 이러한 인플레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공무원 임금인상 등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한 인플레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서 자국통화의 재평가 (revaluation)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두바이사무소 제공】